

상상의 땅 남반구는 어떻게 대륙이 되었나

테라 오스트랄리스

정인철 지음



고지도 학계 권위자 정인철(부산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지도가 탐험의 도구 및 결과를 표현하는 수단을 넘어서, 새로운 미지의 대륙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했다”고 본다. 또한 “지도는 세계관의 표현”으로 “고지도를 연구하면 역사의 단면을 층층이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 교수가 발간한 책 '테라 오스트랄리스'는 상상의 대륙이었던 남반구가 어떻게 지도 속에서 완전한 형태를 지니게 됐는지를 고찰한다. 테라 오스트랄리스는 라틴어로 남쪽에 있는 땅을 말한다. 단순히 남쪽에 위치한 것이 아닌 '적도 이남에 자리한 남반구'를 의미한다.

고대와 중세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지구의 형상이 네모라고 생각했다. 지구 아래에, 다시 말해 남반구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조선의 실학자 이익도 '성호사설' 천지론 편에서 “지구 아래에 위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말을 서양 사람들에 의하여 비로소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언급할 정도다.

그러나 2천 년에 걸쳐 지리적 지식이 확장되면서, 상상의 대륙은 실존하는 땅으로 인식된다. 저자는 오랫동안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던 남반구가 오늘날 어떻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태평양 국가, 남극 대륙으로 분화돼 지도 속에 표현되었는지 조명한다. 탐험의 역사와 더불어 이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럽인들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은 자못 흥미롭다.

지금까지 남반구 지역을 탐사했던 모험가들의 이야기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827년 오스트레일리아 지도.

와 전기, 역사소설 등은 많이 출간됐다. 그러나 대체로 개인의 모험담에 치중한 나머지 다면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근거해 저자는 남반구가 지닌 정치적, 사회적 의미와 역사적 내력 등을 다뤘다.

책은 모두 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고대와 중세의 테라 오스트랄리스 개념을 비롯해 지도와 문학작품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의 모습을 구라 상정하고 지구의 균형을 유지하는 남반구를 테라 오스트랄리스로 부른 사실을 제시한다. 대척지를 인정하지 않았던 중세 신학자들의 견해와 달리 존재를 인정했던 어거스틴의 주장을 반영한 자료들을 소개한다.

2장은 거대한 자바와 테라 오스트랄리스에 대한 이야

기다. 자바는 16세기 지도에 등장하며 현재의 인도네시아 자바 근처에 표시된 땅을 말한다. 책에 거론한 자바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와 남극 대륙을 포함하는 상상의 대륙이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스페인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의 테라 오스트랄리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미지의 대륙을 찾고자 했던 강대국들의 여정을 엿볼 수 있다. 새로운 땅의 발견은 결국 오스트레일리아와 남태평양의 많은 섬을 식민지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지도는 탐험의 도구와 결과를 넘어, 새로운 미지의 땅을 찾는 욕망으로 연결됐다.

이밖에 7장은 마지막 남은 테라 오스트랄리스인 남극 대륙을 소개한다. 이 역시 식민지 경쟁과 연계된 반면 과학 발전으로 이어진다. 일부 국가는 탐험민주의, 탐험국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발견과 점유의 논리'에 근거해 남극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저자는 “테라 오스트랄리스는 지도상에서 형태를 갖추었지만, 공간의 내용이 어떻게 채워져 나가고, 어떻게 변해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주인이 없는 남극 대륙을 채우거나, 아니면 여전히 어둠으로 남기는 일 역시 우리의 상상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코끼리에게 말을 거는 법=송실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인 저자가 중국의 오늘과 내일을 이해하고 가능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난 몇 년간 대학 교육 현장에서 강의한 것을 글로 풀어써 묶었다. 세계체제의 변화 과정, 특히 서구 세계 중심의 금융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역사적 맥락에서 기술하며 중국의 금융자본주의 체제 진입은 필연적임을 설명한다. <들베개·1만6000원>

▲말의 주인이 되는 시간=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쓰는 말, 그 말이 곧 한국어이고, 그 말을 쓰는 모든 이가 우리말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국어학자 한성우가 쓴 책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실 것'이 아니라 '설 것'이 맞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강조하며, 우리의 말과 글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창비교육·1만6000원>

▲밤엔 더 용감하지=1967년 '폴리처 상'을 받은 인기 시인이자 보스턴대학 정교수로 문학을 가르친 앤 섉스턴의 시집이다. 평생 조울증을 앓아온 저자는 안정과 소외, 자유와 불안, 갈망과 상실 사이에서 요동치는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분열을 과감한 언어로 표현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욕망과 한계 사이에서 방향



하는 여성의 자아를 대대적이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해냄출판사·1만6500원>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출간 7주년을 기념한 양장 한정판 스페셜 에디션이다. 독일의 심리상담가인 저자 롤프 메르클레는 이 책에서 '자존감'에 대해 말한다. 완벽하지 않고 실수투성이에 약점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소개한다. <생각의날개·1만5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검은 행복=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소외되어야만 했던 가수 윤미래의 상처 가득한 유년기를 노래한 '검은 행복'이 그림책으로 출간됐다. 아직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차별에 대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름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선입견으로 인해 상처받은 어린이들에게는 용기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다림·1만2000원>

▲마스크 벗어도 돼?=마리나노 톨로사 시스테레가 유쾌한 일러스트와 함께 세계적 이슈인 '바이러스'에 대해 소개한다. 작가는 다양한 바이러스를 색깔과 무늬로 개성있게 표현했으며 바이러스가 세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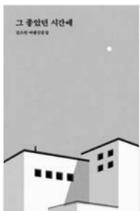
감염시켜 증식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그려 이해를 돕는다. 또 코로나 19 시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앞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이야기한다. <그레이트북스·1만4000원>

▲복덩이가 되는 법=주인공 흥구는 더위가 시작되었는데도 에어컨을 틀어 주지 않는 엄마 때문에 선풍기 한 대를 두고 전쟁을 치른다. 그러던 중 아파트 잔치에서 경품 추첨 선물에 선풍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친구 유준이와 함께 선풍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자신은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흥구가 좋은 운을 타고난 유준이와 친해지면서 자신도 복덩이임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좋은책어린이·9500원>

세상 도쳐서 낯선 나를 만나다...쉬엄쉬엄 여행의 참맛

그 좋았던 시간에

김소연 지음



책 날개에 적힌 작가 소개를 세심히 읽는 편인데, 아주 짧은 글이지만 작가에 대한, 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마음사전', '한 글자 사전' 등을 쓴 김소연 시인의 지난 산문집 '나를 뻗 세상의 전부'에는 "확신에 찬 사람들 속에 나를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약한 마음과 소소한 노력이 언젠가는 해질 녘 그림자처럼 커다랄 수 있다는 걸 믿고 있다. 나를 뻗 세상의 전부에 대한 애정이 곧 나에 대한 애정임을 입증할 수 있었던 한다"고 쓰여 있다.

시간 '그 좋았던 시간에'의 책 날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외의 일들을 선호한다. 구경하는 것보다 뛰

어드는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 경험해 보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나서 후회를 배우는 것을 선호한다. 실재에 있는 것보다 야외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 좋았던 시간에'는 그녀의 첫 번째 여행산문집이다. 코로나 19로 외국 여행의 길은 완전히 막히고, 국내 여행도 왠지 조심스러운 요즘 작가에게 여행은 '우주를 독식하는 시간'이자 '도처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시간'이다.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으며 감동도 받고 후회도 하면서 길어올린 사색과 마음에 담은 풍경들을 한 데 담았다.

책은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세상 밖으로 떠난 다채로운 여행 이야기를 들려준다. 2부는 여행지에서 쓴 일기 모음이며 3부는 여행하며 느낀 사색의 편린들이다.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세계 이곳 저곳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밀립 말레이시아 타만 네가라에서의 한 없이 느린 삶, 일본 홋카이도에서 풀잎 바람개비를 선물로 주던 늙은 부부, 네발 출렁에서 만난 어린이, 인도네시아에서 돌고래와 조우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또 볼리비아 유유니 사막, 터키 이스탄불, 페루 마추

픽추 등의 추억을 들려주며 포르투갈 포르투에서는 여행을 멈추고 방을 얻어 많이 자고 많이 먹으면서 많이 쉬는 것이 더 좋은 여행일 수 있음을 마음에 담는다.

또 충남 태안 서쪽 바닷가 마을에 한달간 머물렀을 때는 수산물 직판장 사람들에게서 해물전, 찜닭자를 건네 받으며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리고 결속력 없이도 행할 수 있는 다정한 관계, 목적 없이도 걸음을 옮기는 산책, 아무 생각도 않은 채로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 식물처럼 햇볕을 쬐고 바람을 쐬는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시인 정지용이 썼던 '여행은 이가락(離家樂)', 그러니까 '집 떠나는 즐거움'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근사한 여행지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그저 집을 떠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 말을 마음에 담고 '낯선 내가 되는 시간'을 갖는다. 침묵하고 있는 심장 대신, 들떠 있는 심장이 되는 시간, '느린 사람들이 느리게 살아가는 곳'으로 그녀는 여행을 가고 싶어한다.

시인의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낸 사진들은 한참을 들여다 보게 만든다. <달·1만4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구)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구)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 지 : 22784㎡(6892평) • 건 축 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 매 가 : 80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